

장성군, 퇴원 환자 돌봄도 책임진다... 지역 의료기관 '맞손'

가정 복귀 이후에도 통합돌봄 서비스... 김한중 군수 "모든 군민 만족하는 두터운 복지 제공"

장성군이 최근 지역 내 의료기관과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성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한중 군수와 고명숙 장성병원 이사장, 장원재 장성해원병원장, 김경옥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대표이사, 이승운 백양요양병원 행정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시행에 앞서, 병원 치료를 끝낸 환자가 가정 복귀 이후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5개 기관은 △퇴원 환자의 가정 복귀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 연계 및 홍보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분야별 서비스 제공 및 기타 정보 공유 △통합지원서비스 대상자 발굴 등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 의료기관이 퇴원 예정 환자 가운데 신체 기능 등을 고려해 돌봄 서비스 대

상자를 선별하면 장성군은 자체 조사를 통해 통합돌봄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돌봄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군민 누구나 제각각 만족할 수 있는 두터운 복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국정과제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은 기관·단체별로 분절돼 시행 중이던 노인, 장애인 대상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장성/황해연 기자**

완도군, 여행 경비 지원·이벤트 쏟아진다!

"월별 추천 관광지 방문·후기 쓰고 특산품 받아주세요!"

완도군이 관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완도치유페이'를 시행 중인 가운데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했다.

'완도치유페이'는 관광객이 관내 숙박, 식당, 카페 등에서 경비를 사용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완도치유페이(쿠폰) 또는 완도청정마켓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월~4월까지 시행한다.

'완도치유페이'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은 '완도치유페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완도 관광지·특산품 홍보를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추천 관광지를 방문하고 후기를 남기면 특산품을 증정하는 '완도, 열두 달의 설렘' 이벤트를 진행한다.

월별 추천 관광지는 계절별 특색에 맞춰 구성됐으며, 누리집과 SNS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3월 추천 관광지는 파도와 갯물이 빛낸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힐링할



수 있는 '정도리 구계동'과 '야영장'이다.

이벤트는 국민 누구나(완도군민 제외)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매월 완도군이 선정·추천하는 관광지를 방문한 뒤 '완도군 문화관광 누리집(관광 이야기)'에 여행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군은 후기 작성자 중 매월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정, 3만 원 상당의 전복을 증정하며, 당첨자는 개별 통보한다.

관광객들의 방문 후기는 온라인 관광 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완도/장선우 기자

영광군은 농업재해와 농작업 안전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정책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극한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은 지난해부터 3%를 추가 지원하여 실제 농가의 부담을 7%로 낮췄다. 가입 대상자는

영광군, 농업인 위한 보험 3종 세트 신속히 가입하세요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가입 가능한 품목은 농작물 재해보험 78개 품목과 농업수입안정보험 20개 품목으로 벼, 대파, 고구마, 옥수수, 콩, 양배추, 감자, 포도, 보리 등이 있다.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 및 질병 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농기계종합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농기계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89%, 농기계종합보

험은 80%가 지원되며, 특히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100% 전액이 지원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은 만 15세에서 87세까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팩트 등 14개 기종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기종과 가입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시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영광/이현식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무안군, 농기계게임대사업소 남부분소 개소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청계면에 농기계게임대사업소 남부분소를 신속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개소식에는 군 관계자를 비롯해 군의회, 농업 관련 단체,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남부분소는 총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지면적 9,330㎡ 규모로 조성됐으며, 보관창고(496㎡), 사무실, 농기계 교육실습장을 갖추고 있다.

김산 군수는 "남부분소 운영을 통해 인근 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확충해 임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담양군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수상

담양군문화재단(이사장 정철원, 이하 재단)은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미술·공예·음악·관광이 융합된 '미술여행'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축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취지에 맞춰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해동문화예술촌과 담빛예술창고 등 공공 문화시설과 공예미술관 보임센을 중심으로 전시 관람, 공예 체험, 대나무 파이프오르간 연주 등을 진행했으며, 다미담예술구와 관방제림 등 지역 명소를 연계한 미술여행 코스를 구성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2026년 곡성군 시니어 생활문화교실 강사 연수 추진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2026년 신규 교육과정인 '시니어 생활문화교실'의 개강을 앞두고 전문 강사들이 현장으로 나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월 모집을 마친 곡성군 시니어 생활문화교실은 시니어 뇌블럭·노인인지 미술공예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연수는 지난 1년간 강사들이 직접 개발한 교육과정을 최종 점검하고, 3월 중순에 운영 예정인 교육과정을 더욱 다듬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사들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업시연 및 샘플 제작 아카이빙 등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극대화했다.

역량강화 연수를 마친 강사들은 오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32주 동안 곡성군 관내 마을과 기관으로 파견되어 다양한 어르신들을 만날 예정이다. **곡성/이경수 기자**

Goheung Spaceship Terminal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2026.5.2.① - 5.5.④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